

마음 열기

찬송가 569장을 함께 부르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축복해 줍시다.

말씀 나누기 민수기 3장 40-43절, “우리는 하나님의 것”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택하셨고,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민3:12). 레위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로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신 바 된 ‘영적 레위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사탄 마귀가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하고,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레위인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 여호와의 편에 서서 헌신했습니다(출32:28-29). 레위지파는 레위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지파였지만, 그들이 주를 위해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관리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복된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영이 살아났고,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를 위해 살 때 영적인 은혜가 공급되고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육보다 먼저 영이 살아야 함을 깨닫고, 주를 위해 살면서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기 위함입니다. 레위인에게는 세상적인 기업이나 땅의 분깃이 없었습니다(신12:1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민18:20).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일하

기만 하면,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가 때를 따라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시고 대적을 막으시며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 레위인을 대신하는 자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첫 것’을 대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첫 것’은 유월절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본래 죽어야 했던 ‘첫 것’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고, 그 ‘첫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대를 이어 살 수 있었습니다. 즉 ‘첫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고, 레위인 역시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레위인으로써 세상을 대신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정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맺음말.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고 주를 위해 힘써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친히 책임지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다.

1.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나요? 그리고 이것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세상이나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나의 삶을 ‘나의 소유’로 여겼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2.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3. 하나님의 소유로써 주를 위해 일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FAMILY 나눔

2026년 5월 3일

우리는 하나님의 것

민수기 3장 40-43절

